

중3-1
국어
미래엔

2025 중3-1 국어 미래엔 | 1(1) 상처가 더 꽃이다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작품 「상처가 더 꽃이다」에서는 시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돼. 혹시 어떤 표현 방법이 좀 기억에 남았니?



아무래도 역설법이죠!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에 쓰인 역설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화자는 고통을 이겨 낸 상처가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움을 역설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지. 이 역설법에 관한 문제는 매년 꼭 출제되고 있으니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 특히 다른 시구를 선지로 제시하고 역설법이 사용된 것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된단다.



‘찬란한 슬픔의 봄’같은 것 말이죠! 완벽하게 공부해 두었다고요.

잘 공부했네~ 그럼 도치법이 사용된 부분도 기억하고 있으려나?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에서 도치법을 사용하여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하고 있어.

또한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렴.



네, 잘 기억해 둘게요! 선생님. 저는 그런데 이 시에 사용된 심상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심상이 사용되었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게 쓰인 건가요?

이 시에는 정말 많은 심상이 쓰였어. 고목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사람들이 고목의 상처를 만져보는 부분에서는 촉각적 심상이, ‘상처의 향기’와 같은 부분에서 후각적 심상이 쓰였지. 심상 역시 다른 시구를 선지로 제시하고 같은 심상이 쓰인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억해 뒤!

그 외에도 ‘-고’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 부분 등을 함께 정리해 두렴.





휴. 쉽지가 않네요. 그럼 <문제 해결과 적용>에 나온 지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그 지문은 수필이었지? **수필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수필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해 둬야 한단다!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쓰였다는 것,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 소재가 다양하다는 것,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는 것 등을 정확히 기억해 둬.



또한 **과거 회상**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는 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기억해. **풍경 묘사**를 통해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지!



네! 정리할 게 많지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중3-1
국어
미래엔

2025 중3-1 국어 미래엔 | 1(1) 상처가 더 꽃이다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여러 해 자라 더 크지 않을 정도로 순화된 나무)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 〕: 대구법과 대조법이 사용됨.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이 대조됨. 대조를 통해 고목의 모습을 더 강조함.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화자는 ‘구경꾼들’과 ‘고목’을 바라보고 있음. 화자가 ‘구경꾼들’과 ‘고목’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1~3행: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보는 구경꾼들의 모습

< 〔 동치(큰 나무의 밑동)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 〕: ‘-고’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고목의 울퉁불퉁하고 거친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보여 줌. ‘-고’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운율 형성 방법과 관련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진물(부스럼이나 상처 따위에서 흐르는 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협상궂다(모양이나 상태가 매우 거칠고 험하다)

거무죽죽한(색채 이미지. 시각적 심상) 흑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 < >: 고목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음.)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고목의 고통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

〔 의연(의지가 굳세어 고떡없음.)하고 의젓(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음.)하다 〕〔 〕: 고통 속에서도 승고하고 굳건한 고목)

사군자(동양화의 주된 소재가 되는 매화·난초·국화·대나무) 중 으뜸답다(고목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 화자가 ‘고목’을 예찬하고 있음.)

▶ 4~11행: 상처를 지닌 고목의 의연한 모습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나라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국가 원수가 수여하는 휘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나아치거나 나았던 병이 도로 심해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籍)(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으로 보이는가 〕〔 〕: 대구법. 구경꾼들은 ‘상처’를 훈장이자 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백 년 못 된 사람(백 년도 살지 못한 사람. 구경꾼들이) 매화 사백 년(고목이 매화나무임을 알 수 있음.)의 상처를 헤아리라마는 〕〔 〕: 인간과 고목이 살아온 시간을 비교하여 상처의 깊이를 인식함.)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촉각적 심상. 심상에 관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고목에 대한 구경꾼들의 태도)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고목의 상처를 후각적으로 표현함. 도치법을 사용하여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함. 도치법이 사용된 문장을 선지로 구성하여 이 구절과 같은 표현 방법이 나타난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상처(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야말로 더 꽃(진정한 아름다움을 의미함.)인 것을. 〕〔 〕: 고통을 이겨 낸 상처가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움을 역설로 표현함. 역설법이 사용되었음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역설법이 사용된 다른 문장을 제시하고 해당 구절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다른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역설법과 관련한 문제는 매

년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 ▶ 12~19행: 고목의 상처에서 향기를 맡는 사람들의 모습과 깨달음
- 「상처가 더 꽃이다」

지문 분석

[그 아이와 읍내까지의 오십 리 길을 여행(중심 사건)한 것도 5학년 2학기였던 것 같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함.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 담긴 글임.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일상의 경험에서 아름다움이나 삶의 의미를 찾아 낼 수 있구나.'와 같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수필의 갈래상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필의 특징에 대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으므로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읍내(읍의 구역 안) 아이들은 좋은 참고서며 입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느냐는 담임의 탄식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나'는 읍내에 사는 아이가 아니라 촌에 사는 아이임을 알 수 있음.) 장에 오는 책전(서점)에 진열된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가질수도 적고, 말하자면 덩핑물('덤프(dumping)'은 원가에 비용이나 이윤을 더하지 않고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의미함. '덤프물'은 그렇게 파는 물건을 말함.)로, 내용도 조잡(말이나 행동, 솜씨 따위가 거칠고 잡스러워 품위가 없는)한 것들뿐이었다. 나와 그 아이는 상의하고 또 상의했다. 그러고는 직접 읍내 큰 서점에 가서 문제집이며 참고서를 고르기로 결정했다.(친구와 읍내에 가게 된 까닭)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 먼 길을 어떻게 갔다 오겠느냐며 읍내에 살고 있는 고모에게 부탁하여 사 보내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나는 막무가내였다.('나'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읍내로 향함.)

▶ 읍내 큰 서점에 가기로 한 '나'

우리는 그 토요일(토요일부터 이튿날까지의 시간 흐름이 나타남.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와 같은 선지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로 당장 길을 떠났다. [두 시간쯤 걸으니 흰 돛 단 배, 누런 돛 단 배가 점점이 떠 있는 강이 나왔다. 강을 따라 다시 한 시간쯤 가니 살구꽃이 만발한 나루(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 나루를 건너니 널따란 채마밭('채마'는 먹을거리나 입을 거리로 심는 식물인 '채마'를 심어 가꾸는 밭), 채마밭을 끼고 큰길을 또 한 시간쯤 걸으니 읍내였다.]([]: 읍내까지 4시간이 걸림. '나'가 본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제시하고 있음.) 읍내에는 이층집이 즐비하고(많은 것이 빽빽처럼 가지런하고 뽕뽕하게 늘어서 있다.) 많은 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번화하고 복잡한 읍내의 풍경으로 인한 긴장감. 낯선 곳에서 느끼는 감정 ①) 병이 나서 삼촌의 등에 업혀 읍내에 들어와 본 일은 있었지만 내 발로 걸어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던 것이다.

물어 물어 서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거리에 어둑어둑 땅거미(해가 진 뒤 어스레한 상태. 또는 그런 때)가 깔리고, 서점에는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다. 너무 책이 많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점원이 우리에게 찾는 책을 물었고, 우리가 말하자 책을 찾아 주었다. 우리는 자세히 보지도 않고 책값을 냈고, 그 책들을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어, 나는 더럭 겁이 났다.(낯선 곳에서 느끼는 감정 ②)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겠어서 가까이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잠은 고모네 집(읍내에 위치함.)을 찾아가 자기로 정해져 있었다.

▶ 읍내 서점에서 정신없이 책을 구경하고 삼.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옆자리의 아저씨들이 우리가 촌에서 온 것을 알고는 말을 붙였다. 나는 책을 사러 왔다는 말을 하고 찾아갈 고모네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다. “야, 너희들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 든 그는 “어, 이거 너무 멀잖아.”(아저씨가 '나'의 사정을 알게 됨.) 했다. 고모네 집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었다.(난감한 상황) 결국 우리는 군청 직원인 그 아저씨들을 따라가 군청 숙직실에서 자고 아침밥까지 얻어먹었다.(계획과 달리 고모네 집에서 자지 못하고 군청 숙직실에서 잠. 군청 직원 아저씨들의 도움을 받은 경험. 이를 통해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함.) 이튿날 다시 서점에 가서 이번에는 동화책들을 뒤졌는데,

〈포도와 구슬〉로 익숙해 있던 현덕의 소설집 《남생이》를 어린이물로 알고 산 것도 이때다.

▶ 군청 직원의 도움으로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음.

돌아오는 길은 훨씬 즐거웠던 것 같다.(숨 막히고 겁이 남. → 즐거움(감정 변화)) [먼지가 폭삭대는 길, 강가의 널따란 채마밭, 강바람에 날리던 살구 꽃잎들. 나루터의 늙은 사공, 새파란 강물에 드문드문 박힌 노랑고 흰 돛을 단 배들…….]([]: 집으로 돌아오면서 바라본 풍경도 글쓴이의 즐거움을 반영함. 즉, 집으로 돌아올 때의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풍경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음. **풍경 묘사를 통해 글쓴이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때 본 이런 것들은 군청 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와 **마음씨 좋은 직원의 웃는 모습**(자신을 도와준 군청 직원인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나'), 그리고 현덕의 소설 〈군맹(群盲)〉속의 인물들인 만수 또는 점숙의 모습과 함께 아직도 내 뇌리에 **짙은 색깔의 그림**(풍경을 그림이라고 표현함. 글쓰이가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그림'에 비유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글쓰이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심미적 인식을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심미적 인식과 관련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으로 박혀 있다.

▶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낀 즐거움

- 「사립 학교 자리, 시새움과 책전이 키운 아이들」

중3-1
국어
미래엔

2025 중3-1 국어 미래엔 | 1(1) 상처가 더 꽃이다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제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대조적, 감각적, 교훈적
제재	매화나무(어린 매화나무, 고목)
주제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대조하여 표현함. 고목의 상처를 자세하게 묘사함.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남.

2. 시의 짜임

1~3행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보는 구경꾼들의 모습
4~11행	상처를 지닌 고목의 의연한 모습
12~19행	고목의 상처에서 향기를 맡는 사람들의 모습과 깨달음

3. 구경꾼들의 행동

꽃이 한창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가 아닌, 꽃이 한창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 서 있다.
↓
고목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다.
↓
고목의 상처를 보며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향기도 맡아 보고 있다.

4. 대조 표현

1행	2행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5. 다양한 심상

시각적 심상	동치도 가지도 꺾이고 ~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촉각적 심상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후각적 심상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
고목의 상처를 시각적·촉각적·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함.

6. 역설 표현

모순된 표현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그 속에 담긴 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 낸 상처가 더 아름답음. 외형적 아름다움보다 내면적 아름다움이 감동을 줄 수 있음.

↓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 표현을 사용함.

TEST 1단계

1. 제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조적, □각적, □훈적
제재	□화나무(어린 매화나무, 고목)
주제	아름답고 □귀한 □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목을 □조하여 표현함. • 고목의 □처를 자세하게 묘사함. • □처가 □보다 □ □름답다는 □설적이고 □신한 발상이 드러남.

2. 시의 짜임

1~3행	어린 □화나무와 □목을 보는 □경꾼들의 모습
4~11행	□처를 지닌 □목의 □연한 모습
12~19행	□목의 □처에서 □기를 맡는 사람들의 모습과 □달음

3. 구경꾼들의 행동

꽃이 한창 □고 있는 □린 □화나무가 아닌, 꽃이 한창 □고 있는 □목에 더 몰려 서 있다.
↓
고목의 □처를 바라보고 있다.
↓
□목의 □처를 보며 □탄하고 □어 보고 □루만지기도 하고 □기도 맡아 보고 있다.

4. 대조 표현

1행	2행
어린 □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 사백 년 □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5. 다양한 심상

□각적 심상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각적 심상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각적 심상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고목의 □처를 □각적·□각적·□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함.

6. 역설 표현

모순된 표현	□처야말로 더 □인 것을.
그 속에 담긴 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보다 □통을 이겨 낸 □처가 더 아름답음. • □형적 아름다움보다 □면적 아름다움이 □동을 줄 수 있음.

↓
겉으로는 □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깊은 □리를 담고 있는 □설 표현을 사용함.

TEST 3단계

1. 제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적, □□적, □□적
제재	□□□□(어린 매화나무, 고목)
주제	아름답고 □□한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을 □□하여 표현함. • 고목의 □□를 자세하게 묘사함. • □□□ □□□ □□□□는 □□적이고 □□한 발상이 드러남.

2. 시의 짜임

1~3행	어린 □□□□와 □□을 보는 □□□□들의 모습
4~11행	□□를 지닌 □□의 □□한 모습
12~19행	□□의 □□에서 □□를 맡는 사람들의 모습과 □□□

3. 구경꾼들의 행동

꽃이 한창 □□ 있는 □□ □□□□가 아닌, 꽃이 한창 □□ 있는 □□에 더 몰려 서 있다.
↓
고목의 □□를 바라보고 있다.
↓
□□의 □□를 보며 □□하고 □□ 보고 □□□□□도 하고 □□도 말아 보고 있다.

4. 대조 표현

1행	2행
어린 □□□□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 사백 년 □□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5. 다양한 심상

□□적 심상	동치도 가지도 꺾이고 ~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적 심상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적 심상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
고목의 □□를 □□적·□□적·□□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함.

6. 역설 표현

모순된 표현	□□야말로 더 □□인 것을.
그 속에 담긴 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보다 □□을 이겨 낸 □□가 더 아름답음. • □□□□ 아름다움보다 □□□□ 아름다움이 □□을 줄 수 있음.

↓
겉으로는 □□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깊은 □□를 담고 있는 □□ 표현을 사용함.

TEST 4단계

1. 제재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___적, ___적, ___적
제재	___(어린 매화나무, 고목)
주제	아름답고 ___한 ___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___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___을 ___하여 표현함. • 고목의 ___를 자세하게 묘사함. • ___는 ___적이고 ___한 발상이 드러남.

2. 시의 짜임

1~3행	어린 ___와 ___을 보는 ___들의 모습
4~11행	___를 지닌 ___의 ___한 모습
12~19행	___의 ___에서 ___를 맡는 사람들의 모습과 ___

3. 구경꾼들의 행동

꽃이 한창 ___ 있는 ___가 아닌, 꽃이 한창 ___ 있는 ___에 더 몰려 서 있다.
↓
고목의 ___를 바라보고 있다.
↓
___의 ___를 보며 ___하고 ___ 보고 ___도 하고 ___도 말아 보고 있다.

4. 대조 표현

1행	↔	2행
어린 ___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___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5. 다양한 심상

___적 심상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___적 심상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___적 심상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
고목의 ___를 ___적·___적·___적 심상을 활용하여 표현함.

6. 역설 표현

모순된 표현	___야말로 더 ___인 것을.
그 속에 담긴 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___보다 ___을 이겨 낸 ___가 더 아름답음. • ___ 아름다움보다 ___ 아름다움이 ___을 줄 수 있음.

↓
겉으로는 ___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깊은 ___를 담고 있는 ___ 표현을 사용함.

O / X 문제

【1~16】 「상처가 더 꽃이다」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이 시는 연결 어미 ‘-고’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O / X)

2. 화자는 ‘어린 매화’의 의연함을 예찬하고 있다. (O / X)

3.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O / X)

4.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 X)

5. ‘고목’과 ‘구경꾼들’의 태도를 대조하여 대상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다. (O / X)

6. 시의 제목과 마지막 행을 유사하게 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였다. (O / X)

7. 시인은 상처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성숙해질 수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 (O / X)

8. 화자를 직접적으로 등장시켜 시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O / X)

9.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에는 ‘찬란한 슬픔의 봄’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O / X)

10. ‘고목’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꾸준한 태도를 연상할 수 있다. (O / X)

1. O 2. X 3. O 4. X 5. X 6. O 7. O 8. X
9. O 10. O

중3-1
국어
미래엔

2025 중3-1 국어 미래엔 | 1(1) 상처가 더 꽃이다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사백 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흑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흑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빠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중 으뜸답다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勳章)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符籙)으로 보이는가
백 년 못 된 사람이 매화 사백 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감탄하고 쓸어 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 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 「상처가 더 꽃이다」

핵심 정리

목차
1. 머리말
2. 본론
3. 결론
4. 맺음말